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6

2015.11.8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 : 8)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오늘의 주요기사

- 2015 사역박람회 일정
- 목회 칼럼
- 27주년 기념 지상토론
-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 역사
- 함즐함울 협력업체 공고

교회 일정

11/1~22(주일)	사역박람회
11/15(주일)	새생명축제 시작
11/23(월)	정기당회
11/24(화)	예친사 2학기 종강
11/27~28(금~토)	예친사 전체 세미나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2015년 사역박람회 열려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주일 1층 로비

올해 주님의교회의 표어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다. 즉, 하나님을 위한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되새기는 한 해였다. 지난 봄부터 사명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구역 모임을 통해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많은 공부를 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이를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1층 로비에서 펼쳐지고 있다. 담당 교역자인 심홍섭

목사는 “이번 사역박람회 컨셉은 ‘사명을 통해 (나의) 가치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이 있는데,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고 있는 분들을 사역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한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히 이번 사역박람회는 겨자씨 사명과 관련하여 외부 NGO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의 사명이 교회 내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 속으로의 부르심에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

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 내외부의 사역의 자리에서 겨자씨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약 7천 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음에 비해, 사역에 헌신하는 교인은 약 1천 4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일산의 거룩한빛 광성교회의 경우, 출석교인 7천명, 교육부 3천명의 교인 중 45%~50%의 교인이 사역에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 2면에 계속

2015년 사역박람회

교인 5명 중 겨우 1명이 여러 사역 감당

1면에서 주님의교회의 경우 겨우 20%, 평균 5명 가운데 1명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분명 부러운 모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경우, 새신자가 등록하면 목회자가 바로 면담을 하여 적절한 사역으로 안내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사역을 통해 교회에 봉사하면서 느낀 보람 때문에 교회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선순환을 낳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역박람회는 가장 섬기기 어렵고 많은 손을 필요로 하는 섬김위원회 봉사분과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진행되며, 11월 22일 특별위원회 예수친구사역팀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 사역박람회의 특징은, 겨자씨 단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월드비전, 기아대책 본부, 결핵제로운동, 애란원 등 외부의 여러 엔지오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내부에서의 사역과 별도로, 겨자씨 단위에서 이러한 외부 기구들과 연결되어 항상 이웃을 섬기는 사명의 본래 뜻을 되새기는 것이 이번 사역박람회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사역박람회 후에는, 사역 신청자들과 팀장들이 만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논하는 만남의 장이 11월 29일 펼쳐질 예정이다.

함줄함울

2015 사역박람회일정

날짜	위원회	분과	사역팀
11월 1일 11월 8일	섬김위원회	봉사분과	주방, 커피봉사, 주차안내, 서점/도서실, 환경미화, 결혼예식
		복지분과	구제, 복지, 호스피스, 녹색, 장애인사역, 사랑나무, 섬김과나눔(늘푸른대학/특별구제, 무료급식/죽배달)
		문화스포츠분과	미술(11/8일만), 문화스포츠선교, 성극
	목양위원회	예배분과	중보기도부
	특별위원회	국제교육선교센터	예수친구사역(11/1,8,15,22), 12단계성경연구(11/1,8,15)
11월 15일	섬김위원회	NGO	월드비전(11/1일만), 기아대책
		국내선교	농어촌선교, 도시선교, 기관선교, 법조선교, 의료선교, 이미용선교, 군경선교, 외국인선교
		통일선교	하나원사역, 북한이탈주민사역
	특별위원회	해외선교	선교사중보/비전트립,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미주유럽/아프리카
		청소년사역원	반가운학교, 학원선교
		국제교육선교센터	교육선교, 예수친구사역, 12단계성경연구
	상례위원회	상례	
11월 22일	목양위원회	NGO	결핵제로, 애란원
		예배분과	예배1,2부, 안내1,2부, 새벽기도, 통역
		음악분과	찬양대1,2,3,4부, 주오오케스트라, 미시오데이, 할렐루야찬양대
		소그룹분과	은사사역
		2030부부	2030부부
		양육분과	새가족, 가정사역, 양육클래스
	교육위원회	미디어분과	함줄함울/출판홍보
		EM분과	EM, 어린이영어예배, 토요일한국어교실
		특별위원회	국제교육선교센터
11월 29일	외부팀	국제교육선교센터	예수친구사역
		NGO	결핵제로, 애란원
11월 29일	신규 신청자와 팀장들과의 만남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1

聖幕器具 (성막기구)中

焚香 壇(분향 단, altar to burn incense)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되니라(출애굽기 40장 26~27)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향에 불을 피우고 제사 드리기 위해 향로를 올려놓는 받침대이다. 제사행위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 바로 앞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때 번제단의 불로써 성소 안 분향단에 분향했다. 그 외의 다른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간주되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 상번제시 두 차례 이곳 분향단에 향을 피워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焚(불사를 분) : 많은 나무 또는 떨감을 상징하는 林(수풀 림)에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화한 火(불 화,

급할 화)를 합쳐 ‘나무로 된 떨감에 불을 붙여 사른다.’는 의미가 되었다.
★香(향기 향) : 곡식을 대표하는 禾(벼 화)와 태양을 상형화한 日(해 일, 날 일)을 합쳐 ‘벼이삭이 햇볕에 익는 냄새가 향기롭다’고 표현하여 기분 좋은 풍년의 기쁨을 나타내었다.

★壇(단 단, 제단 단) : 흙이나 땅을 대표하는 土(흙 토, 땅 토)에 크고 높음의 상징인 亠(클 단, 높을 단)을 결합시켜 ‘흙으로 돌아가면서 높이 쌓아올린 구조물이 제단이 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신은 높은 곳에 계시므로 산이나 높은 인공구조물에서 제사한 것이 기원이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26



남천경로당 100여 분
파는 밥 지어
무료급식 후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섬김의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목회칼럼

우리 아빠, 엄마가 달라졌어요!

살다보면 남에게 맡길 수 없고 반드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데이트 같은 것이다. 그런데 부부간의 데이트 말고도 남에게 맡길 수만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로 다른 누구에게 떠 맡길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내 자녀의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자녀교육의 주된 책임은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닌 학교나 교회가 자녀를 교육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반겼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책임자가 교사,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영적 성숙을 원하지만 어

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교회의 프로그램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수 세기 동안 회당은 기도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유대 가정은 여전히 자녀의 영적 교육(훈련)을 위한 주된 장소였다. 적어도 1세기 중반까지 교육은 주로 유대인 아버지의 책임으로 여겨졌으며, 유대인 교사들은 회당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여겼다. 그리고 바울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것을 특별히 예베소서 6:4에서 명령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자녀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훈련의 주된 책임이 학교나 교회, 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받고 또한 가정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자를 위한 훈련의 기본 장소이고 부모는 자녀를 제자로 만드는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것이다.

아버지학교나 어머니학교 등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부름에 반응은 좋았지만, 또 그것을 통해 가정의 일부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족은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주체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 교육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가족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가정을 쪼개어 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틀이 될 것이다. 가족이 함께 활동하면서 부모로부터 지혜와 말씀을 전수 받는다면 앞으로의 교회와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삶과 성품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한평생 누구도 앗아 갈수 없는 큰 재산을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빠, 엄마가 달라져야 할 때이다.

홍성욱 목사

사역보고

2015년 하반기 장학금 집행

2015년 주님의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하반기장학금이 지난 9월 24일 55,687,790원 지급되었다. 집행 예정인 고등학교 4/4분기 1,778,940원을 집행하게 되면 하반기 장학금 총지급액은 57,466,730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정신여자고등학교 하반기장학금 14,720,000원이 따로 지급되었다. 이번 하반기 대학생 대상자의 경우 납부 영수증 금액의 100%를 지급했으며, 2015년도 상,하반기 장학금의 총액은 117,997,840원에 이른다.

주님의교회 장학금은 교우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지급이 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참여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은 매년 2회 (2월, 8월)에 있고, 주보와 예배 시간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교회의 정해진 예산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으로 지급하므로,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학생과 부모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사과를 드린다. 주님의교회 장학금은 생활자금 지급이 아닌 학자금 지급이므로 재학중인 학교 및 타기관에서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은 중복해서 교회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없음도 알려 드린다. 2016년도에도 주님의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계속하여 지급됨을 알려 드린다.

권성호 안수집사 / 장학위원회

예천사 소식

국내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번 10월 23-24일 기간동안 예수친구사역 훈련중 국내성지순례를 돌아보는 새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순례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선교역사 기념관을 시작으로 제암리, 여수 애향원, 김제 금산교회를 통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신앙에 대한 열정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한국 기독교가 순교자의 피방울 위에 세워졌음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암리 교회를 통해서 외세의 침략과 핍박, 억압의 질곡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선조들 앞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한 사

마리아인으로 사역하신 포사이드 선교사와 윌슨 선교사, 원수까지도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형식과 가식이 있는지 새삼 부끄러워 회개의 무릎이 꿇어집니다. 금산교회를 세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차별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 앞에서 믿음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로서의 사명을 생각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이웃,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종이 아닌 친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한 사명자로 믿음위에 굳건히 지킬 기도하며 소망해봅니다. 강석인 안수집사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울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⑤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그 다섯 번째로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에 대해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의 기고를 받았습니다.

이 글, 또는 다음 주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호에 수록하여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①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교회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사역 등 주님의교회의 제도로 표현된 정체성에 대한 배경사, 철학, 정신, 신학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봅니다.

②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한국교회사를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형성과정과 영향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봅니다.

③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 관행, 공동체의 실천적 일상 등을 정체성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④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 누군가가 바라보는 주님의교회, 즉 인접교회, 교단, 학교 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교회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⑤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한국 당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⑥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이런 여러 상황과 관점을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좁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공동체를

한국교회의 상황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사명을 예배와 전도로 이해해 왔다. 특히 전통종교의 저항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도에 힘을 써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려야했기 때문에 전도가 가장 우선적인 교회의 과제가 되어왔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선교 1세기 만에 전체 국민의 20%에 육박하는 인구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고,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교회의 유지나 확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종교단체로 여겨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일들에서 볼 때 개신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익집단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상대방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도의 대상자와 타협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상대를 낮잡아보기 쉽다. 이렇게 자신의 집단 안에 매몰된 사람은 더 넓은 사회의 지평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생활에 열심일수록 사회에 대한 의식수준은 더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것은 한국 개신교가 더 이상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성장주의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심각하게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교회 성

장이 아니라 교회에 내실을 기하며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전래 초기 한국 개신교는 사회 부조리를 혁파하고 새로운 가치 질서를 제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날의 개신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 공공의 선이나 선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성숙한 기독교인의 관심은 마땅히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공동체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공동체는 자신의 존재를 두고 있는 더 큰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보냄 받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션얼 처치의 필요

최근 한국 교계에서 이러한 인식에 터한 ‘미션얼 처치’(missional church; 미셔널 처치, 또는 선교적 교회라고도 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공동체의 붕괴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 자체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종교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게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상황에서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공존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의 힘을 키워서 세력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자는 것은 강자 중심의 논리이고 패권주의식 발상이다. 상대방을 무조건 개종시켜야 할 선교의 대상자로만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화의 언어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까지 선교와 관련된 오해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미션얼 처치이다. 미션얼 처치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 받아 4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한 후에 은퇴한 레슬리 뉴비긴이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인도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영국이 바로 선교지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가 되어 버린 선교기지의 실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원주의적인 영국의 상황에서 복음은 개인들의 영역 속에서 사사로운 것이 되었고 교회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공적인 진리로 제시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미션얼 처치는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본질로 이해하며, 교회 자체가 이미 세상에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교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교는 단순히 복음 전도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수준에서는 전인격을

／ 통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을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을 넘어서 공공의 수준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수준에서는 하나의 대항문화(counterculture)로서 기독교 정신과 가치에 터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실천전략으로서 지역공동체 운동

교회가 공공성을 견지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한다고 할 때, 최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참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체주의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해지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

역 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가 경쟁을 앞세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원리가 지배한다면, 공동체 운동은 배려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마을 만들기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마을’은 말 그대로 물질로 구성되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를 포함하는데, 곧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시민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일차로 예배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시민공동체이기도 하다. 하나의 의례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터한 지역 사회를 공동체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개교회 내부 결속력은 강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활동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여 활동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교회주의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님의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작은 교회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교회와 같은 중견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이 운동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매우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 운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독려를 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선교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는 자원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공공의 공간으로서 수평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다. 주님의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교계에서 시금석이 될 만한 개혁적인 교회 제도를 선도하였다. 이제는 그러한 정신을 사회 공간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좁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23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

미북장로회선교부가 정신여학교를 폐쇄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 (1927년 8월 9일)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는 1883년에 세워진 원산학사(元山學舍)이다. 원산에 관리와 지방 유지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기존 서당을 개량한 학교의 형태였다.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는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이다. 홍영식(洪英植)·서광범(徐光範) 등에 의해 근대문명 보급을 위한 근대학교 설립을 제기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Hulbert, H.B.), 길모어(Gilmore, G.W.), 벙커(Bunker, D.A. 후일 정신여학교 초대교장 애니엘러스와 결혼)가 내한하여 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정부고관자제만을 수용하는 신분적 제한, 주로 외국어학 교육 등으로 민족사회에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1894년 폐교하였다.

이 땅의 근대교육을 선도한 것은 기독교계 학교였다. 감리회 소속으로는 1885년 배재학당, 1886년 이화학당, 장로회 소속으로 1885년 언더우드학당(후에 연세대, 경신학교) 그리고 1887년 정동여학당(정신여학교)이다.

선교계 학교는 남, 여 학교가 동시에 개교되어 우리나라 교육이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교육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의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었다.

근대교육을 선도하던 선교계 학교는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위기를 맞는다. 일제가 교육령을 발동하여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이 교육령에 대해 미 선교본부는 선교사업의 일환인 교육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에 이르자 1927년 미북장로회 선교본부는 조선의 교육사업 인퇴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장성에서 온 편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주안에서 문안인사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와 장성 화산교회가 주안에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먼저는 주님의 은혜이요, 또한 이 지역 출신인 최재규 안수집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번에 농어촌 선교사역팀이 봉사를 오셔서 이 지역 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지역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역 주민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많이 오시지 않으면 어떨까!” 염려도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이어지는 섬김과 봉사, 상담, 찬양과 복음 전파, 친교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아버지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주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교회와 이번 사역팀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장성 화산교회에서 주님의 종 정성남 목사 드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126:5-6)

아기나들이



이세진 아기

2015년 6월 25일생

1.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2. 많은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눌 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3.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생각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아빠 이경훈, 엄마 박민지 / 2015년 10월 18일 3부 예배

모십니다

2016년 <함즐함울> 제작 협력업체를 모십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즐함울>의 협력업체를 모십니다.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매 2~3주 간격으로 간행됩니다. 인쇄 제작 사양과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 색도, 부수**: 가로 257mm 세로 364mm, 양면 4도 원색인쇄, 매호 2,000부 발행 기준
- **후가공**: 4면일 때 한번 접지, 6면일 때 두번 접지, 8면일 때 한번 접지, 삽지
- **용지**: 미색 재생용지, 현재 한솔이 라이트 80그램 미색 무광 사용중
- **제작 시기**: 2~3주간격, 금요일 저녁 파일 송고, 익일 오후 3시 이전 납품
- **선정 기준**: 유사업무 수행경력, 품질의 적정성, 업무협조의 용이성, 납기의 준수, 견적금액

2016년부터 <함즐함울>의 제작을 맡아주실 협력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사업무 수행경력서, 발행면수별 제작비 견적서의 PDF파일을 2015년 11월 20일까지 hamletter@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시험 제작 및 내부 심사 등 소정의 선정과정을 거쳐 제작 협력업체로 모시겠습니다.

함즐함울

겨자씨 사명실천 소식

4교구 5구역(룻) 겨자씨 자연보호 봉사

4교구 5구역(룻) 겨자씨(구역장 유희문 은퇴안수집사) 구역모임을 2015년 10월 31일(토) 인천광역시 중구 소무의도에서 10명 겨자씨가 참여하여 야외예배(현지 해양박물관 휴게실)를 드렸다. 예배 후에 소무의도와 실미도 해안가의 쓰레기를 3시간(소무의도 오전 1시간, 실미도 오후 2시간) 동안 수거하여 오물 처리장에 모아 처리하였다. 맑은 가을 날 가을 추위로 바닷바람에 손도 시려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모여 예배드리고 자연보호 봉사 활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겨자씨 간 마음과 마음이 깊이 교통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유희문 은퇴안수집사

알립니다

12단계 성경공부 6단계 개강 및 추가모집

개강 : 11/18(수) 오후 7:15 대예배실

추가모집: 11/1(주일)~18(수) 1층 안내데스크

문의: 홍성욱 목사(010-9431-9910)

교육목회원 신입교사대학 개강

일시 : 11/8~29(주일) 오후 2:00~3:30 3층 초등부실

대상 : 오픈강의로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준엽 전도사(010-7736-0662)

2016년 대학수험생 안내

중보기도 : 수험생 명단과 기도제목 11/8 1층 데스크 기록

수험생 축복의 시간 : 11/8(주일) 1부 예배시

수능일 학부모기도회 : 11/12(목)오전 8:30~오후 5:00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문의: 강현규 목사(010-2985-7775)

예수친구사역 1, 2 단계 훈련생 모집

기간 : 11/1(주일)~22일(주일)

문의: 이은석 전도사(010-4417-9779)

임마누엘 찬양대(4부) 모집

문의: 이성규 집사 (010-5503-5512)

신병 진중세례식

일시 : 11/14(토) 25사단(경기 양주)

문의: 이성훈 안수집사 (010-8949-1479)

하나원(안성) 주일예배 함께 하실 분

일시 : 11/15(주일)오전 7:10 교회 출발

문의: 유현숙 집사(010-6218-4043)

모십니다

2016년 <함즐함울> 기사를 모십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즐함울> 기사를 모십니다.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지면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자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분.
- 신문사, 잡지사, 학보사, 출판사에서 취재, 편집 경험이 있거나, 없지만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내 여러 사역 활동을 두루 알고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함즐함울> 기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
- 일러스트나 만평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이 있는 분.
-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있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즐함울>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위에 적힌 여러 조건에 맞아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께서 2015년 11월 30일까지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 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저희 함즐함울 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즐함울